

생태 환경에 대한 샤머니즘 신봉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박 일 영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요 약〉

샤머니즘은 민중종교로서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의 종교심성에 기저로 작동한다. 그러한 성격은 샤머니즘으로 하여금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태환경의 보전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통로의 하나로 기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샤머니즘이 한국 종교 전통의 하나로서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천착하려고 한다. 본론에서는 먼저, 생태 환경에 대한 샤머니즘 신봉자들의 인식에 대한 자료를 무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정리와 분석을 한다. 그리고 나서, 샤머니즘 의례들 안에 들어있는 '생태환경의 보전'이라는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인 종교현상학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 샤머니즘의 세계관이 제시하는 생태환경의 보전이라는 의미를 찾아보고 그 실천의 길을 모색한다. 물질 만능의 시대를 지나 영성과 문화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고 생태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면서 기쁨과 희망을 준비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이때에, 현대 사회 안에서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종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한반도에서 오랜 세월 민중과 함께 해온 종교로서의 역사를 가진 샤머니즘이 지닌 생태환경의 보호자 및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천착하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핵심 주제어 : 샤머니즘 신봉자, 생태환경, 민중종교, 영성과 문화, 종교간 대화와 협력, 생태환경 교육 및 교육자.

* 본 연구는 2006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 론

발전과 개발만을 일삼던 시대를 지나,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우리는 이제 생태환경의 문제에 대하여 새롭게 각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개별 종교는 인류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방식인 각각의 문화에 있어서 그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볼 때 특히 민중종교로서 샤머니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종교심성에 기저로 작동한다.

그러한 성격은 샤머니즘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태환경의 보호라는 과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통로 중의 하나로 기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샤머니즘이 다양한 종교 전통들 중의 하나로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천착하려고 한다.

본고의 연구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샤머니즘이 생태환경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의 내용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의(巫儀)에서 불리는 무가 자료들을 통하여 들여다본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샤머니즘의 의례들 안에 들어있는 ‘생태환경의 보전’이라는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인 종교현상학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 시대를 사는 오늘의 한국인에게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샤머니즘이 제시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 실천의 길을 모색한다.

영성과 문화의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사람들은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향해 기쁨과 희망을 준비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이때에, 현대 사회 안에서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종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민중종교인 샤머니즘이 생태환경의 보전에서 담당하는 일정한 역할을 천착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II. 샤머니즘 신봉자의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 내용

여기서는 샤머니즘 신봉자들의 공동체 의례인 무당의 굿에서 드러나는, 생태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의 내용을 찾아본다.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무당들은 보통 사람들이 영위하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신성과 일치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삶을 종교적이게 하고, 신성하게 만드는 전문가이다. 무당들은 의례를 통하여 일반 신도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샤머니즘의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 특히 그 중에서도 생태환경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예를 무의에서 구송되는 무가 자료들을 통하여 찾아보기로 한다. 수많은 무의와 무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당들이 구송한 무가들을 지역별로 세 가지를 골고루 선별하여 다루기로 한다.

1. 서울 새남굿에 나타나는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 내용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104호 보유자로 지정된 김유감(1924~)의 서울 새남굿 무가에 나타난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을 찾아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새남굿’은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적인 굿으로,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규모가 큰 굿이다. 일반적으로 죽은 이를 위하여 하는 굿을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지노귀굿 또는 진오귀굿이라 부른다. 그러나 상류 계층을 위한 규모가 큰 굿을 새남굿이라고 부른다.¹⁾

민간에서는 이 굿을 흔히 ‘지노귀새남’의 줄임말로 ‘새남’이라고 부른다. 그 분명한 어원과 뜻에 대하여는 여러 갈래의 의견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²⁾ 한국 종교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이능화(1869-1943)는 그의 1927년도 저서인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제16장 ‘무행신사명목(巫行神事名目)’에서 ‘지노귀새남’을 한자어로 지로귀산음(指路歸散陰), ‘굿’을 신사(神祀)라고 적어서, 지로귀산음신사(指路歸散陰神祀)라고 칭하였다.³⁾ 한자어의 뜻 그대로 풀이한다면, “[저승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주어서, 음[의 요소인 혼령]이 흩어져 돌아가게 만드는 굿”이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다.⁴⁾

그러나 이러한 풀이는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 후대 학자들의 평가이다.⁵⁾ 이에 비하여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한 가지 해석은 “-남”을 ‘낳다’의 명사형으로 보아, “새남”을 ‘새로/다시 낳음’[거듭남; 重生, 再生, 更生]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새남굿은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혹은 저승에서 훌륭한 인물이나 신격으로 거듭 나기를 기원하는 종교의례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한 해석을 하는 이유는 망자를 위한 여러 종류의 굿에 죽은 이가 새로 거듭 태어나기를 비는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착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서울 새남굿은 재수굿 형태의 ‘안당사경맞이’와 본격적인 망자 천도 의례인 ‘새남굿’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안당사경맞이는 새남굿을 하기 전날 저녁부터 새남굿을 하는 날 새벽까지 밤을 새워서 논다[거행한다].

안당사경맞이의 제차(祭次)는 다음과 같다: 주당물림-부정[부정치기]-가망청배-진적-불사거리-도당거리-초가망거리-본향거리-조상거리-상산거리-별상거리-신장거리-대감거리-제석거리-성주거리-창부거리-뒷전 등 17거리로 구성된다.

이어서 거행되는 새남굿의 제차는 다음과 같다: 새남 부정거리-가망청배-중디밧산-사재

1) 박상국 외, 『서울 새남굿.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1』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7쪽 참조.

2) 위의 책, 8-9쪽 참조.

3) 이능화, 이재곤 역, 『조선무속고』 (서울: 동문선, 1991), 151-152쪽 참조.

4) 박상국 외, 앞의 책, 7-8쪽 참조.

5) 조홍윤/김선희, 『무형문화재 발굴 기여능 조사보고서. 제227호 서울 새남굿』 (서울: 문화재관리국, 1996), 참조.

6) 박상국 외, 앞의 책, 10쪽 참조.

삼성거리-말미거리-밖도령-문들음-영실-안도령-상식-뒷영실-배제[배가르기]-시왕군웅거리-뒷전 등 14거리이다. 이렇게 볼 때, 새남굿은 이상에 열거한 모두 31거리로 구성되는 규모가 매우 크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굿의 절차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김유감의 어머니로서 조선조말의 궁중무당으로 알려진 반송업(1888~1951)의 문서 중에서 안당사경맞이의 ‘부정’과⁷⁾, 김유감의 구송을 채록한 새남굿의 초입부 절차인 ‘부정거리’⁸⁾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정과 부정거리야말로 모든 무의에서 첫 부분을 형성하는 동시에, 생태환경의 문제점을 가장 잘 드러내줌으로써, 본고의 연구취지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무당은 어떤 종류의 굿을 하던지 초대된 신령들이 굿판으로 오는 길과 굿을 하는 장소 주변의 불결한 것을 제거하는 절차를 맨 먼저 거행한다. 이와 같은 부정이라는 개념은 점차 신격을 갖춘 존재로 상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부정가망’[不淨神] 내지 잡귀잡신을 포함하여 모든 부정스러운 것들을 물리어 제의 장소를 정결하게 한다. ‘가망’은 순 우리말로 신 또는 신령이라는 뜻이다. 신령들이 즐겁게 인간의 정성을 받으라는 내용의 기원을 담은 무가를 부르며 부정 소지를 태운다. 이것이 ‘부정치기’ 또는 ‘부정거리’이다.

안당사경맞이의 부정거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영정가망에 부정가망 시위들 하소사.”⁹⁾ 여기서 ‘영정’은 불결한 영태(靈態) 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객귀의 뜻이다. 즉, 외롭고 불결한 잡신들, 부정한 모든 신들은 물러가라는 경고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다: “마루 넘어서 오든 부정/ 재 넘어 오든 부정”(217b).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영향력[부정]은 산을 넘고, 고개[재]를 넘어 어디서든 다가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소 잡어 우마 부정/ 말 잡어 대마 부정.”(217b) 소나 말을 도살할 때 흘리는 피라던가, 그와 같은 살생을 할 때에 겪는 동물들의 고통이 모두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한다는 생각이 여기에 들어 있다.

이렇게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후, 다음 부분에서는 시대적 불운이나, 인간 관계에서 오는 부조화 등을 거론하고 그러한 문제의 극복을 기원한다. “시절이 험난하고 해운이 불길해도/ 국태민안허구 시화연풍허구 간택이 평안허구/ O씨에 대주¹⁰⁾님은 어전법전은 시위안전/ 각성반이 만인간 열 인간을 거느려두/ 천인이 꽃으루 보구 만인이 앞으로 봐서/ 관재수 귀설수 모략중상/ 억울한 누명은 없이 받들어 줍시사”(218a).

이어서 여행이나 노상에서 아무런 사고나 부상,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없기를 기원한다. “삼지사방 새벽길 낮길 밤길/동서사방엘 땡겨도/ 모진 인간 나쁜 인간/ 험한 인간 다 저차 주시고/ 관재수 귀설수 모략중상/ 억울한 누명 없이 점지해줍소사”(221a). 안질(眼疾)을 비롯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역시 인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요소로 보고 그

7) 위의 책, 217-224쪽.

8) 위의 책, 264-267쪽.

9) 위의 책, 217a쪽. 이하에 인용하는 구절들은 따로 각주를 밝히지 않고 본문의 괄호 속에 쪽수를 넣어 처리한다.

10) 대주(大主)는 굿을 의뢰한 제가집의 남자 어른을 뜻한다.

예방을 기원하고 있다. “눈썹 불썹 애삼석삼/ 눈다라끼 민다라끼 종다라끼/ 마른 안질
진 안질 닦으나/ 방울 같이 민경 걸고/ 색경 걸고 화경같이/ 물려주고 밝히어 줍시사/ 꿈자
리 몽사 없고/ 벨몽 사몽을랑 다 짓혀 주소사”(223a).

그 외에도 전쟁의 참상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신들을 거론하기도 하며, 억울한
죄목을 쓰고 목숨을 잃거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또는 해산하다가 잘못 되어서 죽어간 인
물들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쓰내기 귀신들로부터 살아있는 인간과 생태계에 악영
향이 끼치지 않기를 기원한다. “난리든 전시통에 총칼 맞고 파편 맞고/ 매 맞아 육시쳐참에
가든 영산¹¹⁾/ 배두 고파 목도 말려 주려서 가든 영산/ 하탈 영산 [중략]..... 해꼬진 거 다
짓혀줍시사”(223b-224a).

안당사경맞이 부정거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부정하고 나쁜 영향력,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의 복원을 꾀하는 기원을 담아냄으로써 의례 절차를 마무리 한다.
“동서 모인 신 영정들을랑 물려여소사/ 부정들을랑 대활이 영정/ 영정가망 놀아나오/ 부정
가망 놀아나오/ 열 부정 놀아나오 뜬 부정 놀아나오/ 들리 영정 놀아나오 날리 부정 놀아나
오/ 흐린 부정 둘러내구 맑은 청수 둘러라”(224b).

새남국의 부정거리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다시 한 번 반복된다. “영정가망에 부정가
망/ 아린 부정은 쓰린 부정/ 숨지어 뉘진 부정/ 피진 부정 업어내시고 모셔내시고 저냅시
다”(264a). 사람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고 쓰리게 하는 모든 나쁜 영향들을 완전히 제거해 내
기를, - 업어내고 모셔내고 저내자고 -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상의 자료에 의거해 볼 때, 부정(不淨)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샤머니즘에서 살아있는 인
간에게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력의 총체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생태환경의 오염 내지 파괴와 유사한 개념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굿 현장에서는 흔히 “부정을 친다.”는 언술을 들을 수가 있다. 이러한 표현에 따르면, 굿의
초입에 거행되는 ‘부정[치기]’ 내지 ‘부정거리’란 생태환경의 오염 내지 파괴를 인식한 후,
이렇게 파괴된 세상을 극복하고 원래 모습의 이상적 세계, 생태 질서가 보전된 아름다운
세상의 복원을 염원하고 상징하는 대표적 샤머니즘 의례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해안 별신굿에 나타나는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 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제 82-가호 동해안 별신굿의 보유자로 활동하였던 김석출(1922-2005)과
그 일가의 경북 영일 지방 별신굿 무가에 나타난 생태계 관련 인식과 제시되는 해결책을
찾아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별신굿이란 동해안의 세습무 집단이 해당 마을의 안과태평을
빌고, 바다에서 사고 나지 말며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굿이다.
이러한 굿판에서 인간의 생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 볼 수 있는 곳은 지금도 자주 들
을 수 있는 서사무가가 구송되는 자리에서이다. 이 세상이 절대적 존재인 세존(世尊)님께

11) 영산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령.

의하여 어떻게 생겨나고 운행하는지를 설명하는 창세(創世) 신화를 재연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구송(口誦)되는 무가 중에 ‘삼태자 풀이’ 또는 ‘당금아기 타령’이라는 무가가 있다. 평균적으로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정도 구송 되는 장편의 대서사시이다. 이 무가는 동해안 별신굿에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과 생태환경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개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¹²⁾

시주를 받으러 다니던 동냥중이 어느 날 지체 높은 양반 집의 외동딸과 상판한다. 그녀는 세존님의 점지로 세쌍둥이를 낳는다. 이 세쌍둥이들이 장성하여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삼신이 되었다. 아버지로부터는 뼈를 받고, 어머니로부터는 살을 받아 몸을 이루고, 세존님으로부터 숨을 받아 온전한 인간이 된다. 이렇게 뼈살이, 살살이, 숨살이를 하여야 한 인간이 숨을 쉬고 살게 된다.

간추려본 위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불승(佛僧)으로 변장한 신과 당금아기라는 여인이 결합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탄생을 주관하는 삼신이 태어난다. 즉 출생의 직접적 원인은 남녀간의 성행위이지만 (삼)신의 “점지”가 보다 근원적 원인이라는 사상이 이러한 이야기 속에는 배어있다.¹³⁾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생존의 조건 및 생활환경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초인간적인 존재의 소관이라는 생각이 그 속에 짙게 깔려 있다.¹⁴⁾

좀 더 자세히 무가의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무가를 구송하는 초입에 무당은 “오늘 여기 OO씨 터전에 OO씨 명당 안에”¹⁵⁾라고 언급하면서, 장소적으로 적절하고 정결한 곳에 굿판(祭場)이 마련되었음을 고한다. 종교적 의례를 거행하기 위하여서는 생태 환경적으로 잘 보전된 곳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굿을 하는 이유가 의뢰자의 발병에 따라,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를 택하고, 몸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정결하게 하여 정성을 드린다는 내용이다. “천하방에 건귀 잡고 지하방에 황토 깔아 생기 복덕을 가려 받고/ 목욕재계 정히 하고..... 이 정성을 드리는 뜻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댁 가중 OO씨 우연 득병하야/ 가난이 적막하고 심난이 산란하야 이 공덕을 드릴 적에.....”(40).

다음으로는 근로 환경의 안전에 대한 기원이 나타난다. “농업도 하고 해업(海業)도 하시고 공업도 하시고 상업도 하실 적에/ 한재 풍재 수재 조재(旱災)도 다 막아달라고”(40). 요즈

12) 김태곤, 『한국 무가집 4』 (서울: 집문당, 1979), 39-61쪽 참조.

13) 박일영, 『한국 무교의 이해』 (왜관: 분도출판사, 1999), 151-154쪽 참조.

14) 서대석, 『한국 무가의 연구』 (서울: 문학사상사, 1980), 70-80쪽 참조;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서울: 예전사, 1984), 116-120쪽 참조.

15) 김태곤, 앞의 책, 39쪽. 이하 본문에 나오는 인용문 말미 괄호 속의 숫자는 이 책의 쪽수를 가리킨다.

음 유전자 조작, 공해와 유해 비료 등에 찌든 식료품 등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먹을 만한 음식을 찾는 일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무가에서는 어떻게? 부처에 대한 공양에 빗대어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오염되지 않은 정갈한 음식을 강조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우리 절에 부처님은 [수숫대로 만든] 비로 실어[쏟아] 넣어주면 수숫대가 나서 공양을 안 받고/ [버드나무로 만든] 채이[채]로 까불어 넣어 주시면 버들대가 나서 공양을 못 받사 오니”(44-45).

장소의 청결은 깨끗한 생태환경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버님 주무시는 방은 땀내 인내가 나서 못 자겠다고 하는구나..... 어머님 방에서는 자식내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나서 못 잔다고 하는구나..... 아홉 형제 오빠들 방에는 놀내 땀내가 나서 못 잔다고 하니..... 어찌 인수 인간이 그리 누추한 데 자겠나이까.”(45).

우여곡절 끝에 부부의 연을 맺은 시주승과 동침한 당금아기는 꿈을 꾸다. 현몽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의 설화에서 종종 신의 뜻을 전하는 장치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한 쪽 어깨는 해가 돌고 한 쪽 어깨는 달이 솟고/ 또 하늘에 별 세 개가 떨어져서 내 치마 앞에 쌓여 뵈이고/ 구슬 세 개가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가 뵈다.”(47). 이러한 꿈 내용은 인간 부부의 화합은 바로 우주 자연과의 조화라는 자연과 인간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또한 인간의 출생과 우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치이기도 하다. “한 쪽 어깨의 해는 나의 직성이고/ 또 한 쪽 어깨의 달은 아가씨 직성이고/ 하늘에 별 세 개가 떨어져 치마 앞에 쌓여 뵈는 것은/ 삼신이 뚜렷이 굽어보셨고”(48).

더 나아가 하늘 내지 우주와 인간이 서로 통하면 상호간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천인감응의 사상도 나타난다. “이 때 회광이 칼춤을 추고 소주를 칼에 품고 야단법석이 났는데/ 이 때 뚝 하늘에서 뇌성벽력 우뢰주뢰 번갯불이 뻗듯이더니/ 회광이 손발이 딱 얼어붙고 작두가 딱딱 부러지더니/ 흙비 돌비가 마구 쏟아져서 물난리가 나는데..... 당금아가 누운 자리만 햇볕이 내려 쏘이고 서기가 진동하는구나....., 당금아기는 벌써 하늘이 아는 자식인데”(52).

그 이후에도 당금아기의 세 아들들에 의한 초능력의 이야기들이 계속된다. 살아있는 잉어를 회를 해서 먹고 난 후 산 고기를 입으로 토해낸다던가, 삼년 묵은 소 뼈다귀[뼈다귀]를 모아서 살아있는 소를 만든다든가. 쪼으로 닭을 만들어 해를 치게 만들기도 한다(57-58). 언뜻 황당해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과 인간이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경우, 아니 우리 인간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영성을 다시 계발할 경우, 회복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나게 훼손된 자연환경도 치유할 능력을 발휘한다는 메시지는 아닐는지?

3. 황해도 철무리곳에 나타나는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 내용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82-나 호로 지정된 서해안 풍어제의 보유자 김금화(1931~)의 곳에서 채록된, 황해도 철무리곳 무가에 나타난 생태계 인식과 그에 관련하여 제시되는 해결책을 찾아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¹⁶⁾

철무리곳은 황해도에서 우환이 없는 집이 새로 집을 지어 입주하거나, 자손의 창성을 빌기 위해서 하는 곳이다. 철무리란 철 따라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온다는 뜻이라고 한다. 주로 음력 시월상달이나 정월에 한다. 대동곳¹⁷⁾을 하는 마을에서는 대동곳을 하고나서 하는 데, 대개 삼년마다 한 번씩 시행한다. 황해도 연백, 웅진, 해주 등지에서 잔치를 베풀 듯이 하는 곳이라서 이웃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온다고 한다.¹⁸⁾

곳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청울림-일월성신맞이-철성맞이-세인곳-상산부군맞이-초부정, 초감홍곳-복잔내림-영정물림-제석곳-소놀음곳-성주곳-소대감놀이-도산말명 방아찜곳-사냥곳-성수거리-별상거리-타살군웅곳(생타살곳, 익은타살곳)-면산 장군거리-대감놀이-서낭곳-조상곳-걸림대감놀이-비수거리(작두거리)-마당곳(사신곳).¹⁹⁾

철무리곳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잘 나타난다고 보이는 성주곳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이상의 순서에서 보듯이 성주곳은 열한 번째 순서로 하는 곳거리이다. 한 집안의 길흉과 재복을 관장하는 신격인 성주신을 대접하고 그 집안의 복과 길상을 기원하는 곳이다.

성주곳 무가의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우선 무당은 신복을 갖추어 입은 후에, 동서남북에 [방위를 관장하는 신격들에게] 각각 절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맴을 돌고나서 장고 앞에 선 다음, ‘만세받이’²⁰⁾로 무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성주신을 맨 처음 집안으로 초청해 들이는 도입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가의 내용은 “기도하자”(Let's pray)는 권유가 아니라, “놀자”(Let's play)라는 권유로 일관한다. 흥겹게 잘 놀아야 신과 자연과 인간이 화합하고 만사형통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노십시다 노십시다 성주판판님 노십시다...../ 이 터전 입초성주 저 터전 밧초성주 여성주 남성주님 집임자님 노십시다./ 오방지신은 터주 살랑이고 터 임자라/ 성주님은 명성주 복성주로 잘 노십시다.²¹⁾

16) 김금화, 『김금화 무가집, 거므나따에 만신 회나백성의 노래』 (서울: 문음사, 1995), 96-104쪽.

17) 한강 이북 지방에서 지역공동체의 안녕과 조화를 위하여 강신무가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곳.

18) 김금화, 앞의 책, 31쪽 참조.

19) 위의 책, 40-41쪽.

20) 만세받이란 곳을 주재하는 무당이 무가를 한 구절씩 보조 무당들과 주거니 받거니 계응으로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다.

21) 김금화, 앞의 책, 97쪽. 이하 본문에 나오는 인용문 말미 괄호 속의 숫자는 이 책의 쪽수를 가리

이렇게 성주신을 맞이한 다음, 주재 무당은 음식을 차려놓은 상에 다가와서 부채와 방울로 둘러봄으로써 성주신이 흠향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부른다. “밤이면 찬이슬 낮이면 된 햇빛을 받아 인간에 눈가림 할 데 없어/ 산나무에 접을 부치고 있다고 오나라 청내소리에/ 악양석이 석을 잡아 신선같이 드시어서 성주님이 내려오셨으니/ 이 터전에 가치산 줄을 잡아 금당 옥당 집을 지을 제/ 목수나 불러서 톱질이나 해보세.”(98). 이렇게 자연이 제공한 건축 재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후, 인간[목수]의 기술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 상징적 동작을 한다.

이어서 집 지을 땅을 다지는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인 ‘지정타령’을 한다. “..... 산신님께 축원 드리고 한 나무를 쳐다보니..... 제일 명당 터를 닦아 몰하 대지 집을 지을 제..... 가만히 가만히 들었다 놓아라. 용의 머리 다친다..... 좌우청룡 백호터전 청룡백호가 뛰고 노는 이 터전이라/ 치달아서 대살용 내려달아 소살용 제일 명당 터이로다..... 석신에 돌을 빌려 토신에 흙을 빌려 사해용왕 물을 빌려”(99). 집을 짓는 데에는 많은 신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기서 드러난다. 산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데에서 시작하여, 돌의 신, 흙의 신, 물의 신을 모두 거론한다. 그뿐 아니라, 땅을 다질 때에도 조심해서 용신의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어지는 무가의 내용을 보면, 이곳에 새 집을 짓고 나면 집터 자체가 갖는 기운 덕분에 많은 재물과 복락이 들어올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한다. “이 터전을 보니 물레방아 터가 분명하다./ 동남서북에 도는 재물은 빙글빙글 다 돌아든다/ 이 터전을 들여다 보니 부자집 만아들이 밥상을 받는 패로다”(101).

다음으로 신령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공수가 이어진다. “이 터전에 새 터전 이룩하고/ 신사도문²²⁾ 만영천²³⁾을 대령했으니/ 새 집 짓고 삼 년이 무연고 하고/ 재물 들어서 남북 전답을 많이 사서/ 앞노적 뒷노적 모으게 해주시고/ 자손들은 부귀영화 시켜 주리다/ 성주님은 귀엽다고 드시고 지신님은 반갑다고 안심입니다..... 만사형통하리라.”(102-103).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무와 조무들이 빠르게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성주굿거리를 마무리한다. “..... 터주지신님/ 안심하시고/잘 놀고나요...../ 오방지신/ 터주살랑은/ 터임자요/ 업양님도 안심하시오”(104).

이상의 성주굿 무가와 제차를 통하여 볼 때,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이 사는 생태환경은 인간 혼자만의 힘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갖출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들, 즉 “만 영천”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주지되는 것이다.

킨다.

22) 모든 재물을 차려놓고 신령들을 대접하는 제의 절차.

23)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령들.

III. 샤머니즘 신봉자의 생태환경 인식이 갖는 영성적 특성

자연 생태계는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신앙의 내용이 신성한 상징으로 드러나는 가장 훌륭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김태곤이 수집하여 분류한 273종의 샤머니즘 세계의 신령들 중에서 삼분지 이는 자연 생태계의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²⁴⁾ 자연 생태계 안에 신령들의 힘이 들어있고, 그러한 위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태계를 신성시하며, 신성한 힘과 소통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한 자세는 바로 생태계에 대한 신성시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태도를 견지하는 바탕으로 작용한다. 이하에서는 생태계에 대한 샤머니즘의 이와 같은 영성적 이해가 갖는 의미를 종교현상학적인 해석을 통하여 찾아본다.

1. 우주와 일치

일상의 때 묻고 오염되고 파괴된 현실을 정화하고 복원하여, 우주 본원의 영성적 의미를 가지는 상징으로 전환시키는 요소가 샤머니즘의 공동체 의례인 굿에서 드러난다. 마을굿에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신간(神竿)을 가지고 산신을 맞이한다. 이 때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 우주가 품고 있는 신성한 성격을 확인한다.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마을굿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주의 중심[axis mundi]으로 여겨지는 굿판에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세워놓은 신간이 흔들리면서 신령의 강림을 기다리게 된다. 바야흐로 신과 인간이 접촉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때에 종교적 상상력이 동원되면서 영성이 활성화 되고, 자연의 생태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강한 체험을 한다. 이렇게 굿판에서 맞이하는 신의 모습은 천신을 비롯하여 우주를 관장하는 신령들이다. 굿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는 일상적 세계는 신이 중심이 되는 무한하고 신성한 우주로 바뀌게 된다.²⁵⁾ 그것은 마치 현대 생태학에서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인 ‘온생명’으로 보고, 개별 생명체인 ‘날생명’들은 거기에 연결되어 존재라고 보는 시각과 일치하고 있다.²⁶⁾

음력 오월에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단오굿에서 무당 일행이 일주일 가깝게 보여주는 일련의 굿 절차는 ‘기도와 놀이와 노동’²⁷⁾이 하나 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준다.²⁸⁾ 이

24) 김태곤, 『한국무속연구』(서울: 집문당, 1981), 285쪽 참조.

25) 키스터, 다니엘 A, 『삶의 드라마, 굿의 종교적 상상력 연구』(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1997), 44-49쪽 참조.

26) 장희익, 『삶과 온생명』(서울: 도서출판 숲, 1998), 참조.

27) 가톨릭의 대표적인 수도 단체로 알려진 베네딕도회의 모토가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이다. 영성적인 성숙을 위한 수련에 기도와 노동의 합일이 필요함을 동서의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여기에 한국 민중종교로서 샤머니즘이 인간과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 제시하는 또 하나의 길은 ‘놀이’이다. 현대 철학적 해석학의 거장인 독일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때 별신굿은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놀이인 동시에 기도로서의 축제이며, 지역 경제와 밀접한 노동과 직업을 반영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이 된다. 그것은 무당 일행과 신봉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령들에게 다가가려는 공동체 전체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는 상징이 된다.

엘리아데가 간파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공동 의례는 공동체의 놀이를 신성한 공간에서 성스러운 시간에 실현함으로써 영적으로 승화시킨다. 이러한 의례는 인간과 자연과 신령이 혼연일체가 됨으로써 ‘시간과 변화에 의해 때 묻지 않은’ 온전성과 조화와 자유가 넘치는 낙원 상태로 의식적으로 회귀함으로써 공동체의 원형적 노력을 형상화한다.”²⁹⁾ 이와 같은 의례를 거행함으로써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인간 삶에 안전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의도에도 부합하게 된다. 그래서 별신굿은 우주에 질서를 잡아주는 신들의 세계를 향하고 있는 높은 장소나 긴 나무로 만들어지는 별신대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³⁰⁾

샤머니즘의 신봉자들이 우주와 일치하는 방편 중 하나로, 의례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간과할 수는 없다. 무당과 악사들이 연출하는 예술적 재능, 그리고 그러한 의례에 참여하는 일반 신도들의 태도는 신령들의 초월적 능력에 대한 찬미와 경탄에 한정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적 감수성은 굿당을 꾸미는 화려한 장식품들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활기찬 음악의 연주는 또 다른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재비들의 강렬한 북 장단과 여기에 어우러지는 피리의 절묘한 어울림은 굿판에 함께 하고 있는 신봉자들을 일상사의 시름에서 ‘이끌어 내서’[ex-stasis; ecstasy] 신령들의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 들이는’[enthousiasmos; enthusiasm] 역할을 하고 있다. 신령의 자기 현시와 인간의 영적 감수성이 교차하여 현실화되는 신과 인간의 만남은 “이중적이고 상호적인 엑스터시, 곧 신이 자신을 벗어나서 인간에게로 나아가고, 인간이 자신을 벗어나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엑스터시를 수반한다.”³¹⁾

가다머는 “놀이란 의미를 발생시키는 작업”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Hans 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Zürich, 1969, p. 289.

28) 박일영, 「단오굿을 통해 본 한국 무교의 이중적 실재」, 『샤머니즘연구』 4 (서울: 한국샤머니즘 학회, 2002), 165-198쪽 참조.

29) M. Eliade, *Cosmos and History. the Myth of Eternal Return*, tr., W. Trask, New York: Harper, 1954, p. 89. 키스터, 다니엘, 앞의 책, 21쪽에서 재인용.

30) 장정룡, 『강릉단오제』 (서울: 집문당, 2003), 36-43쪽; 박일영, 앞의 글(2002), 175-178쪽 참조.

31) Hans Urs von Balthasar, *The Glory of the Lord. A Theological Aesthetics I. Seeing the Form*, tr., Erasmo Leiva-Merikakis, Edinburgh: T & T. Clark, 1982, pp.125-126. 키스터, 다니엘, 앞의 책, 24쪽에서 재인용.

2. 자연 친화

굿당의 주변은 대개 울창한 숲을 이룬다. 흔히 당산나무숲이라고 하는 곳이다. 샤머니즘의 신봉자들에게는 이러한 나무들이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베거나 훼손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³²⁾ 굿당 인근이 다른 장소와 달리 생태환경의 보존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연친화적인 영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을 이러한 자세를 통하여 반성하게 된다. 이제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위한 영성적 기반이 여기에 마련될 수 있다.

굿에서 사용되는 여러 상징들은 일상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상물들이다. 굿을 주재하는 무당이 굿상에 놓았다가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물들은 본래 밥상에서 나누던 일상의 양식과 다르지 않다. 굿상은 제사인 동시에 밥상이며, 신에게 드리는 제물인 동시에 일용할 양식인 것이다. 다만 신령이 흠향한 “명음식”으로서, 인간이 신령과 친교를 맺는 상징성을 그 안에 담는다는 의미가 추가될 뿐이다.³³⁾

병굿에서 무당이 환자에게 건네는 ‘물’은 생명력을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오염의 정화와 신체의 청결을 물의 반복적 사용과 다양한 변용을 통하여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맹물 뿐 아니라 쑥물, 갯물, 향물 등이 빈갈아 사용된다. 이러한 제스처는 오염과 질병을 치유하는 정화와 재화를 회구하는 몸의 기도라 할 만 하다. 소우주로서 인간 개인의 몸을 정화하고 재화시킴으로써 대우주인 생태계 전반의 질서 복원을 연계한다.

어린 아이를 위하여 벌이는 굿에서 사용하는 꽃은 건강과 복을 나타낸다. 서울 새남굿이나 동해안 별신굿 그리고 황해도 재수굿에서 “피우는”[만들어서 굿상을 장식하는] 종이꽃은 저승에서 맞게 될 삶의 개화(開花)와 역사의 완성을 상징한다. 굿은 이러한 미래 전망을 이승에서 시각적, 청각적으로 미리 선취(先取)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전라도 씻김굿에 등장하는 ‘고풀이’에서는 기다란 광목천에 매듭을 진 일곱 마디를 당골 무당이 춤을 추면서 풀어낸다. 매듭을 풀어가는 행위는 얽매이고 뒤틀린 부정적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정결한 세계로 향하는 과정을 춤의 형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의례적 동작을 통하여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 성스러운 상징으로 그 의미를 심화시킨다. 그러한 결과,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짓눌린 민중의 일상사(日常事)는 신령의 손길이 닿는 성사(聖事)로 탈바꿈한다.

황해도 재수굿에서 무당이 돼지나 닭을 도살하면서 보여주는 피는 강력한 정화의 상징성을 드러낸다.³⁴⁾ 이렇게 보면, 물, 꽃, 피 등 자연에서 얻어지는 상징들은 인간과 생태계의 친밀성을 확인시키고 있다. 오래 지속되는 자연 현상 또는 생태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

32) 주장현, 『굿의 사회사』 (서울: 웅진출판사, 1992), 147-150쪽 참조.

33) 박일영, 「무속의 대동잔치」, 『종교신학연구』 3 (서울: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소, 1990), 115-144쪽 참조.

34) 박일영, 앞의 책(1999), 106, 117쪽 사진 자료 참조.

로 여겨지는 의례의 이러한 장면들은 자연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는 신령의 존재를 감지하게 만든다. 그것은 일상의 초월인 동시에 영성의 활성화로서, 신성한 종교의례를 통하여 자연생태계의 본래적 의미를 상기시키는 메커니즘이다.

3. 신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신령들의 소통이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샤머니즘 신앙 현장들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신봉자들로부터 삶의 아리고 쓰린 부분들이 들추어져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진 후, 일정한 자유와 해방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준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신령과의 접촉을 통하여 인간 삶에 스며들어있는 부정으로부터의 자유,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로부터의 해방을 얻게 해 준다.

점복을 보도록 하자. 모든 점복은 “의뢰인이 자아로부터 그리고 현재의 위기로부터 영적인 거리를 얻게” 됨에 따라 초월적 영역으로 “자아의 재집중(recentering)” 효과를 수반한다고 한다.³⁵⁾ 사람들은 점복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처하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샤머니즘 신봉자들은 자기 삶의 안팎에서 조화를 찾게 된다.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보자면, 점복은 신봉자들에게 자기 삶에 신령의 영향력이 계속하여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점복이 하는 바와 같은 역할을 굿에서는 신령들과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공수’가 맡아서한다. 특히 강신무가 작두를 맨발로 타고 올라서서 내리는 공수의 과정은 신봉자들에게 신령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능력의 과시는 신성성과 접촉하는 무당의 자유와 권능을 드러내는 초인간적인 상징으로 다가오기도 한다.³⁶⁾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본향신 맞이춤은 절제된 모습으로 신의 현존을 형상화한다. 해녀들이 주를 이루는 마을 아녀자들은 바닷가의 굿당에 모여들어 굿상을 차린다. 굿을 주관하는 무당은 마을 수호신인 본향신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이른바 “당 매인 심방”이다. 무당은 의례 복장을 갖추어 입고서 타악기의 장단에 맞추어 절제된 동작으로 춤을 추면서 본향신을 굿당에 맞아들인다. 무당은 우주개벽과 자연생태계의 구획, 인간과 동물의 출현을 북 장단에 맞추어 노래한다. 이렇게 춤과 노래로 신들의 세계가 인간 세계에 연결되도록[군문열림] 만든다.³⁷⁾ 우주와 산천, 인간과 동식물은 하나 같이 영험한 신적 요소를 지니는 상

35) Evan M. Zuesse, “Divination”,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4, New York: Macmillan, 1987, p. 380b. 키스터, 다니엘, 앞의 책, 14쪽에서 재인용.

36) 박일영, 「무교의 공수와 그리스도교의 계시에 관한 비교연구」, 『종교연구』 11 (서울: 한국종교학회, 1995), 334-346쪽 참조.

37)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서울: 집문당, 2004), 146-169쪽 참조; 장주근/이보형/김수남, 『제주도 영등굿』 (서울: 열화당, 1983), 15-94쪽의 사진 자료와 해설 참조.

호 연결된 성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굿에서 가장 주목을 요하는 요소는 음식의 나눔이다. 모두 하나를 이루는 잔치가 배풀어지는 어울림의 판이야말로 말로 굿판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이다.³⁸⁾ 굿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어지는 밥, 떡, 물, 술은 생명력을 포함하고 생명의 원리를 표현하는 먹을 것을 나눔으로써 인간들과 인간들, 인간과 신령들이 친교를 나눈다. 그렇게 제물과 음식을 나눔으로써 내면적인 힘과 외면적인 조화를 복돋워준다.

굿의 중요한 요소로서 놀이와 웃음은 인간이 신령과 교감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놀이문화는 성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다. 굿거리에도 등장하는 이러한 놀이적 요소는 신봉자들을 울리고 웃긴다. 그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당들은 신령을 모시고 기도를 드린다. 그 때의 기도는 고등종교들이 보여주는 엄숙하기만한 기도가 아니다. 놀이로서의 기도이다. 무당들은 “기도합시다”(Let's pray!)라고 신봉자들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놀아봅시다”(Let's play!)라고 청한다. 심지어 죽은 이를 천도하는 굿에서조차 이러한 해학과 놀이는 빠지지 않는다.³⁹⁾

인간과 신령과 자연이 굿판에서 만나 조화로운 합일을 이룰 때에 노동, 기도, 놀이도 역시 일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된 현대 사회의 파편화된 인간의 삶, 영성을 잃어버린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은 함께 모여 놀고, 빌고, 일한다. 영성을 다시 살리는 굿판에서는 종교와 오락과 노동이 하나의 유기적 활동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바로 잊혀졌던 영성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통하여 우주[생태계] 전체에 대한 내면적이고 영성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신과 인간의 조화가 성취시키는 세계의 완성을 상기시킨다.

IV. 결론: 생태환경 교육의 기반으로서 영성의 재발견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한 샤머니즘의 위상을 다시금 규명함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태환경의 오염과 파괴에 직면하여 종교문화가 담당하는 생태환경의 보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희망을 찾아내게 한다. 공동체의 삶 속에서 문화의 보존과 생명의 전승이라는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전통 종교로서 샤머니즘과 생태환경을 관련지어 보면, 종교간 대화와 협력으로 실천을 기대하게 되는 생태환경의 보호에 대한 희망의 뿌리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근거(根據)의 재발견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 안에서 문화 전통을 재확인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제시하리라고 기대하게 된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샤머니즘은 일상이 드러내는 부조화, 불완전, 부조리를 분명

38) 박일영, 앞의 글(1990), 115-144쪽 참조.

39) 이경엽, 『삶의 끝자락에서 펼쳐는 축제. 셋김굿』, (서울: 한얼미디어, 2004), 22-24, 118-120쪽 참조. 상가에서 밤새워 웃고 떠들고 놀면서 죽은 이를 달래는 축제식 장례 절차를 “밤달애”라고 한다.

하게 인식하고 있다. 본고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그것은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의 오염이라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 속에서 공동체 의례는 신령과 우주, 자연과의 통교를 통하여 세상의 오염을 정화하고 매듭을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정화 의례인 굿에 참여하기 전에 신봉자들은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성생활을 삼감으로써 몸가짐과 마음가짐부터 가지런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더러움에 감염되고 불결한 대상과 접촉하게 되면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반면에, 신성한 것과 접촉하기 위하여서는 정결함을 포함하는 온전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중에 인간의 영성이 성숙하게 된다.

한 편으로, 개인구복적으로 쇠락한 일부 무당들이 환경 훼손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명산대천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는 명목 하에, 의례에 사용한 제물을 함부로 버린다던가, 산기도 시에 켜놓았던 촛불을 끄지 않아서 산불의 위험 등이 있다는 것이다. 샤머니즘 신봉자들이 즐겨 찾는 기도터에는 그래서 요즘 “무속행위 금지”라는 팻말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부착해 놓은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된다. 필자가 인터뷰하였던 어느 샤머니즘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저는 하나의 무속인인데 사실 우리 무속인들이 현재 사회에서는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존회 사무실에서도 20명 넘게 회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지각없는 분들이 소음 공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희 단체를 말씀드리면, 스스로 환경 감시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⁴⁰⁾

물론 이와 같은 표피적인 해결책만으로 본질에 접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본론에서 무가나 무의를 통해 살펴본 대로, 신봉자들의 인식 속에는 우주와 일치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과 신령이 화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샤머니즘 신앙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적 경향을 우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종교학자 엘리아데가 말하는 “신비로운 연대감”⁴¹⁾이라고, 말을 바꾸면 영성의 본래적 모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무의에서는 신령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하여 종교적 상징들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신들의 모습을 흉내 낼 뿐만 아니라, 초인간적으로 보이는 묘기를 선보이기도 한다. 맨발로 작두날 위에서 공수를 주는 모습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모습은 신성을 접한 인간들에게 매혹과 전율이라는 신비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40) 필자의 인터뷰 내용. 면접 대상은 대전 앓은곳 보유자 후보인 한 덕(1955년생)으로 면접 일시는 2000년 11월 13일 오전이며, 면접 장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소재 ‘대전 앓은곳 보존회 사무실’이었다.

41)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용주 역, 『세계종교사상사 1』 (서울: 이학사, 2005), 24쪽 참조.

이러한 경이감은 사실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교육될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종교적 감성은 영적으로 자극되고 북돋워질 수 있을 따름이다. 공동체 의례인 굿의 과정은 이와 같은 우주 생태와 자연환경의 신적인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알맞은 장치로 보인다. 그러한 영성의 재발견이야말로 생태환경의 오염과 파괴에 신음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샤머니즘 신봉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더불어서 생태친화적인 인간 삶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가르치는 창조적 길잡이요, 교육자의 역할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금화, 『김금화 무가집, 거르나따에 만신 회나백성의 노래』, 서울: 문음사, 1995
- 김태곤, 『한국 무가집 4』, 서울: 집문당, 1979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1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용주 역, 『세계종교사상사 1』, 서울: 이학사, 2005
- 박상국 외, 『서울 새남굿: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1』,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 박일영, 「무교의 공수와 그리스도교의 계시에 관한 비교연구」, 『종교연구』 11, 서울: 한국종교학회, 1995
- 박일영, 「단오굿을 통해 본 한국 무교의 이중적 실재」, 『샤머니즘연구』 4, 서울: 한국샤머니즘학회, 2002
- 박일영, 『한국 무교의 이해』, 왜관: 분도출판사, 1999
- 서대석, 『한국 무가의 연구』, 서울: 문학사상사, 1980
- 이경엽, 『삶의 끝자락에서 펼쳐는 축제. 씻김굿』, 서울: 한얼미디어, 2004
- 이능화, 이재곤 역, 『조선무속고』, 서울: 동문선, 1991
-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서울: 집문당, 2004
- 장정룡, 『강릉단오제』, 서울: 집문당, 2003
- 장주근/이보형/김수남, 『제주도 영등굿』, 서울: 열화당, 1983
- 장희익, 『삶과 온생명』, 서울: 도서출판 숲, 1998
- 조홍윤/김선풍, 『무형문화재 발굴 기여능 조사보고서. 제227호 서울 새남굿』, 서울: 문화재관리국, 1996
- 주강현, 『굿의 사회사』, 서울: 웅진출판사, 1992
-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서울: 예전사, 1984
- 키스터, 다니엘 A, 『삶의 드라마, 굿의 종교적 상상력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1997

원고접수: 2007년 11월 8일 1차심사: 11월 18일 게재승인일: 12월 15일

연구자 소개: 박일영

① 전공: 비교종교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교수

② 관심영역: 한국과 중국의 민간신앙 비교연구

③ 주요논저: 「무교적 심성에 비추어 본 가톨릭교회의 한국화 전망」, 「종교 간의 갈등과 대화: 무속과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해방 후 토착종교와 가톨릭의 만남(공저)」

④ E-mail: onezero@catholic.ac.kr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hamanists about the ecological environment

Park, Il-Yo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hamanism, a Korean people's religion, functions as one of the fundamental Korean religiosity as before. Such character of shamanism shows us a way how we can manage the task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n the contextual base of this kind of perception, I will investigate the role and meaning of shamanism as people's religion for the protection of ecological environment. This sort of research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a dynamic society as Korea where various religious traditions are looking for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As the first step in this article, I collect and analyze materials like shamans'songs concerning the environment protector' and educator's role of shamanists. And then I try to interpret the shamanistic ritual materials phenomenologically whether shamanist perception includes the facto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way, I grope for some clue of practice which shamanism as one of the oldest religions brings up to protect the environment efficiently in a multi-religious society.

After the era of development and exploitation, now we are welcoming the century of spirituality and culture. In this age, people look over the past and prepare joy and hope for a new life. By such an important turning point, the role of religions for the protection of ecological environmen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institutions in modern society. Furthermore, the role of shamanists as protector and educator of ecological environment is especially invaluable for the scientific research.

Key words : shamanist, ecological environment, spirituality and culture,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environment protection, education and educator of ecology.